

제 1 교시

국어 영역

▶ **특이**

▶ <보기> 내용은 성지에서 제시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동기는 독서 행위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동기를 다루는 심리학 이론인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 즉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성질**에 주목하여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기본 심리 욕구를 제시**했다. 이는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동기의 유형을 단계별로 나누었다. 자기 결정성이 가장 낮은 단계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무동기**, 가장 높은 단계는 행동 주체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내재적 동기**이다. 그 사이에 놓인 **외재적 동기**는 행동 주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동기이다. 외재적 동기는 다시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로 구분된다.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은 보상이나 처벌 혹은 비난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이다.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은 외부의 가치 판단을 수용하고 그것에 따르려는 동기로, 외재적 동기 중 자기 결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이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이 증진됨에 따라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하였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같은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면 자기 결정성이 증진된다고 보았다. 이를 독서 상황에 적용하면, 자발적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서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 **자율성 욕구**는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독자가 스스로 독서 목적을 정하거나 자신의 흥미에 따라 책을 선정할 때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 **유능감 욕구**는 스스로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독자는 도전적인 글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할 때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 **관계성 욕구**는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독서 환경에서 친밀감을 나눌 때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A]

▶ **세부적 서술 차이**

1. 밑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를 충족하는 독서 경험을 통해 자기 결정성이 증진될 수 있다.
  - ②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기본 심리 욕구를 유형화**하고 있다. **동기는 성지에서 제시함.**
  - ③ 자기 결정성 증진은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자기 결정성 이론은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 ⑤ 독서 행위의 지속에는 독서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학생 1: 독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하고 나니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있어.
  - 학생 2: 중학교 때는 독서 일지를 작성하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책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
  - 학생 3: 부모님께서 **책이 인생의 길잡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 그래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책을 찾아 읽으려 하고 있어.

- ① 학생 1은 책을 읽는 즐거움 때문에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동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학생 1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통해 무동기 단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자기 결정성이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학생 2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독서했다는 점에서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학생 2는 **칭찬을 받고자** 독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단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 ⑤ 학생 3은 부모님의 가치 판단을 수용하여 독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답: ④**  
∴ **여전히 자기 덕담.**

㉠ 자율성 ㉡ 유능감 ㉢ 관계성

3. ㉠~㉢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스스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책을 찾아 읽을 때 충족될 수 있겠군.
- ② ㉠은 여행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을 세우고 여행지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을 때 충족될 수 있겠군.
- ③ ㉡은 어려워서 읽기를 중단했던 책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될 때 충족될 수 있겠군.
- ④ ㉢은 영화를 보고 내용에 흥미가 생겨 원작 소설을 찾아 읽을 때 충족될 수 있겠군.
- ⑤ ㉢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책 대화를 나누며 서로 공감할 때 충족될 수 있겠군.

▶ **이해**  
"관계"는 두 이상의 것의 관계가 됨. (ex. A-B)  
**대상이 개인 것만이 사회적 인식 대상!**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쾨베르크는 현대 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이다. 전통적인 조성 음악이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 **범조성**을 지향하였다.

조성 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예컨대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되며,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2도나 단2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되면, 그 화음은 **불협화음**으로 취급된다. 또한 다장조 곡은 ‘도-미-솔’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여, ‘파-라-도’의 버금딸림화음과 ‘솔-시-레’의 딸림화음을 거쳐 다시 으뜸화음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조성 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 쾨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질서가 ㉡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한 옥타브 내의 12개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렬**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다. 조성 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과 장3도·단3도의 관계에 따라 장·단조가 규정되는 반면, 12음 기법의 음렬에서는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쾨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 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쾨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을 제시했는데, 이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의미한다. 응집력은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 **기인**하는 유사성이 반복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수록 곡의 응집력은 강화된다. 이처럼 쾨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성 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다.

(나)

레보비츠는 12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 **규명**했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다.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체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설은 이러한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이라 불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보비츠는 쾨베르크가 조성 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 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평가하였다.

조성 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쾨베르크가 주장한 ㉤ **범조성**은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 **현상학**은 모든 전체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 하지만, 쾨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 **제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다. 바로크 시대 이후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된 평균율은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것에 불과하다. 아도르노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결국 쾨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 **전통적 물감 사용법**을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이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쾨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망함으로써, 음색과 강세 등 개별 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 **간과**했다. 이는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잔여**의 개념과 어긋난다. 현상학적 잔여,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쾨베르크의 음악은 곡의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 현상**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 평균율: 옥타브를 등분하여, 그 단위를 음정 구성의 기초로 삼는 음률 체계. 주로 12평균율을 가리키는데, 단위의 하나를 반음, 2개를 온음으로 함.

기문 내 정보 찾기

4. (가)의 ‘쾨베르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조와 단조를 교차 배치하여 복수의 조성이 하나의 곡 안에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음악적 형식이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음 사이의 관계가 규칙적인 음계 대신 비규칙적인 음렬을 사용하여 난해한 음악을 만들고자 하였다.
- ④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에 기반한 조성 체계의 자연적 질서를 부정하고 음악적 무질서를 추구하였다.
- ⑤ 화음에 기반한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을 부정하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5. (나)의 [현상학적 잔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드러나는 사물의 본질이다.
- ②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의 결과물이다.
- ③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매개로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다.
- ④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모든 전제를 배제한 후 의식에 남아 있는 순수 현상이다.
- ⑤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한 뒤 포착되는,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이다.

규범과 같은 '정해진 것' (질서)을 배제하는 것.

질서를 인식하려는 것의 양립 불가 (반대 서술)

6.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① ㉠은 으뜸음이 주관하는 음악적 질서이고, ㉡은 음의 배열을 지배하는 거시적 구조이다.
- ② ㉠은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작곡 기법이고, ㉡은 전통과 단절되어 새롭게 제안된 작곡 기법이다.
- ③ ㉠은 편협한 질서를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이고, ㉡은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이다.
- ④ ㉠은 작곡가가 아닌 곡 자체에 의해 형성되는 질서이고, ㉡은 작곡가의 음악적 자유를 구속하는 제약이다.
- ⑤ ㉠은 모든 음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이고, ㉡은 곡의 체계를 와해하여 무질서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

but ㉡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과 ㉡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 주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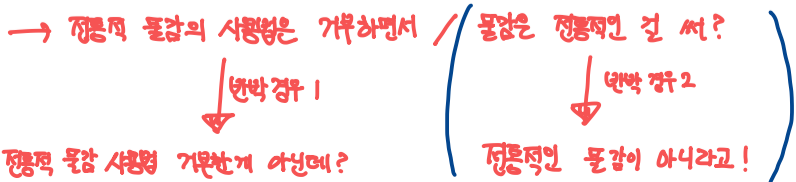
정답 ㉠: 기존의 질서 ㉡: 정답은 또 무엇이겠지. 을 알면 순서!

7. (가)의 글쓴이가 (나)의 ㉢에 대해 반박할 만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정답은 무엇?

- ①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통적 물감 사용법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 ② 12음 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배열 방식이 다른 음이라는 점에서, 이미 동일한 물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③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 ④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이 응집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으로도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 ⑤ 장조와 단조의 구분을 없앴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에서 새로운 물감 사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반박 means.. 아니? 이거 아닌데? ∴ 다른 말은 많지 X.

㉢의 주장



8. (가)의 ' 쇤베르크'의 관점(A), (나)의 글쓴이의 관점(B)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전자 음악]은 공기 진동을 통해 소리를 내는 전통적 악기와 달리, 전기적 신호를 합성하여 무한한 음향을 창조한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자 음악은 다양한 실험을 거치며 음악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바레즈는 <하이퍼리듬>에서 11마디 동안 '높은 도'를 반복하면서 강약과 음색만을 변화시켜 일정한 음향 패턴을 만들어 낸다. 슈톡하우젠은 <십자놀이>에서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한 위상으로 활용하여,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고 각각의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작곡 기법을 선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음악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가령 루솔로는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음악적 재료가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일상의 구체적인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활용하는 구체 음악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 ① A: 음높이는 유지한 채 강약과 음색만을 변주하는 <하이퍼리듬>에서는, 동일한 음높이의 공유와 반복을 통해 곡의 유기적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겠군.
- ② A: 개별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십자놀이>의 작곡 기법은,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되는 한계를 지닐 수 있겠군.
- ③ B: 전기적 신호의 합성을 통해 무한한 음향을 창조하는 전자 음악은, 새로운 음악의 재료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음악의 문화적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겠군.
- ④ B: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하게 활용하는 <십자놀이>의 작곡 방식은, 순간의 미시적 체험에 주목하여 순수한 음향 현상 자체에 도달하는 길을 여는 것일 수 있겠군.
- ⑤ B: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루솔로의 주장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 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겠군.

(나)에서의 ↓ 은 '전통 음악의 핵심'이다.

즉, 전통 음악의 핵심 ≡ 기계음 인 것인가? 가 ㉢의 수반임이다.

[현상]: 쇤베르크가 쓴 것. 기존의 체계.

[기계음]: 새로운 것. 기존의 체계와는 다른. (기계음의 출현)...

핵심 ≡ 기계음이 아니므로, ㉢의 서술은 부정적이다.

나머지 생지는 땅이! 약간의 날개같은 지상 대담이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흠여지고 → 기계 질서가 체계적인(문맥)에 가깝다.
- ② ㉡: 비웃되는
- ③ ㉢: 밝혀냈다
- ④ ㉣: 내놓았기
- ⑤ ㉤: 지나쳤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 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한다.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간주된다.**

기업이 증권 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 상장 법인**이 된다. **상장 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 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다.** 상장 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는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공시 의무는 상장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한 상장 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공시 의무는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발생한다.** 발행 시장에서 **상장 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중요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이행한다.** **다만 상장 법인이 사모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에는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의 **공모 관련 사항**과 **상장 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 **상장 법인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되면, 상장 법인은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유통 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변한다.** 따라서 **상장 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 **상장 법인은 발행인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 정기 공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제공에 앞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공시를 **공정 공시**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가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란 중요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 이른다.** 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이다.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라 볼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장 법인이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 ② 유통 시장에서 투자자들에 의해 거래되는 증권은 가격이 변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 ③ 공시 제도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도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상장 법인은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없다.
- ⑤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법인은 공시 의무를 갖는다.

▶ 사외 정권 ① 인본 ④ 전매 제한 기간 모두 충족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발행시장 ㉡ 정기공시 ㉢ 수시공시

- ① ㉠에서는 상장 법인이 추가로 발행해 공모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시할 때마다~**
- ② ㉡는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즉시** 그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공시는 꼭 지켜야 X**
- ③ ㉢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장 법인이 불완전한 내용을 제출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재 대상.**
- ④ ㉠과 ㉡에서는 **모두** 상장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관련 사항**
- ⑤ ㉠과 ㉢에는 **모두** 증권의 최초 발행 가격과 수량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도 X.**

▶ 2차 2차.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사회 현상.

< 보 기 >

배터리 제조사 갑은 2022년 7월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대표 이사 겸 대주주 A의 지분이 누락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갑은 2024년 6월, A가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공시하였다. 이후 A는 계획대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A와 갑의 임원 B는 갑의 지난 분기 영업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갑은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B는 자산 관리자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C는 갑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던 갑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보기>를 보면 ㉡ 규제 대상 행위를 다룬 정권이 명백하다.

- ① 갑이 증권 신고서에 A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갑은 공시 의무를 위반하였군.
- ② A가 2024년 10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그 행위가 6월에 공시한 계획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A의 주식 매매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겠군.
- ③ 영업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수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겠군.
- ④ B가 C에게 갑에 관한 중요사항을 전달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상장 법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B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하였군.
- ⑤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 것이므로 C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게 되겠군.**

▶ 1차 정보수령자는 내부자로부터 정당한 직접 받은 사람. B도 결국 직접 알게 된 내부자이므로 C가 1차 정보수령자가 될. 정제의 오류. 교란행위가 필수 없음.

13.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다. (나쁜 말한다. 나쁜 의미한다.)
- ① 올해는 예년에 비해 꽃피는 시기가 이르다.
  - ② 친구는 매번 선생님께 나의 잘못을 이른다.
  - ③ 평화는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른다.
  - ④ 그가 아이에게 다시는 늦지 말라고 일렀다.
  - ⑤ 그가 기자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일렀다.

▶ 과학 (정확 과학의 현해. 어떤 내용이 적을 수밖에...)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으로, 심장박출량과 말초 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심장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며 말초 혈관 저항은 말초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이다. 이때 심장박출량은 일회당 심장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지며 일회당 심장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

체내 액체의 총량인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다.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의 모세 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된다.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한다. 작은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여 세뇨관으로 이동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여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된다.)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재흡수란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RAAS)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하여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고 레닌은 안지오텐신 I 이 형성되도록 한다. 안지오텐신 I 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안지오텐신 II 가 되며, 안지오텐신 II 는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수분 재흡수도 증가한다. 그 결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함으로써, 안지오텐신 II 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여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 상승에 관여한다.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에 의한 신경 반사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하는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하여 뇌로 신호를 보내고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콜아민이 분비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해당 기관에 작용한다. 카테콜아민은 혈관에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작용하여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혈압이 상승하면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심장에 작용하여 혈압이 하강한다. 교감 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카테콜아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또한 안지오텐신 II 는 카테콜아민 분비를 촉진한다.

▶ 지문에서 정보찾기

1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 증가에 심박수 증가가 동반될 때 혈압의 상승 폭이 더 크다.
- ③ 혈압이 하강하면 알도스테론의 합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변 배설량이 감소한다.
- ④ 콩팥의 압력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하면 안지오텐신 I 의 형성이 증가한다.
- ⑤ 안지오텐신 II 는 교감 신경계 말단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구체 여과액 양 감소

- ①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의 모세 혈관 압력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 ②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사구체에서 세뇨관으로 밀려 들어가는 물의 양이 감소할수록 혈압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④ 카테콜아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사구체 여과액이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⑤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증가할 때 나트륨 재흡수도 증가하여 체내의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 사구체 여과는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혈압이 낮아져 모세혈관 압력이 떨어지면?

여과도 줄기 양이 줄어든다.

16. 신경 반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한다.
- ② 부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심장박출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하강시킨다.
- ③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기관에 작용하려면 그 기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야 한다.
- ④ 혈압 하강에 반응하여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말초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 ⑤ 동맥벽에 있는 압력 수용기는 혈압 변화에 대한 신호를 뇌로 보낸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어 고혈압이 발병할 수 있다. 이는 말초 혈관이 좁아진 채로 굳어지는 말초 혈관 재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높은 압력이 장기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초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제에는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칼슘 차단제 등이 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나 콩팥에서의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칼슘 차단제는 심장이나 혈관에 있는 근육에 칼슘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 ①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말초 혈관 재형성은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군.
- ②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는 모두 심장 근육 수축력에 영향을 주어 심장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겠군.
- ③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몸에서는 체내의 염분 농도를 조정하려는 작용으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겠군.
- ④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Ⅱ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칼슘 차단제는 근육에 칼슘의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겠군.
- ⑤ 베타 차단제는 레닌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I의 양을 감소시키겠군.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 → 브라디키닌 분해량 ↓ ≠ 브라디키닌 양 증가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현재 5점

[앞부분의 줄거리]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에게, 쇠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킨다.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창고 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찌면 저 벽들도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육신의 매듭마다 뼈격이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벽에다 몸을 힘껏 부딪쳐 보았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무력하게 좌절당한 그는 차디찬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멍해진 의식으로 되뇌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긴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자신의 온갖 기억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 고통 때문에 유쾌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것은 무위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

라 믿어졌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 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 냈다. 흡사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갱,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던 것이다.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 문득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린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육자의 폐처럼 그렇게 음산했다. 그것이 새벽 어스름인지 저녁 땅거민지를 굳이 헤아릴 이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었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단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뿐인 것이다. 자기 생애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어 가는 자기 생애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의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 내고 있었다.

(중략)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천 원을 아까워하리라.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궁리를 해 가면서 전당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다. 머리가 점차로 가뽀해졌다.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손을 털며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다소 흡족한 마음이 되어 한쪽 구석으로 가 웅크리고 앉았다.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해 할 테지.....”

공복과 갈증이 새삼 느껴졌지만 그는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점검해 보았다. 사물들 사이에 주어진 질서가 그를 조금은 즐겁게 했다. 추위도 어지간히 견딜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적어도 동사를 면할 수는 있는 조건이었다.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접어 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애였다.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 외로움 또한 새삼스러울 게 못 되었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그러므로 창고 속의 이 좁은 공간,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자신으로서 는 그다지 타기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얻어졌다. 어찌면 가장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싸늘한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중얼댔다.

“자, 이제부터 또 무얼 한담?”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바로 맞은편 벽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만 소름이 오싹 끼침을 의식했다.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곳을 쳐다보았다. 실

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희고 견고한 벽의 한 가운데에,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다.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건잡을 수 없이 떨렸다. ㉞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그는 미라처럼 어기적거리며 그 문으로 다가갔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찌든 후각을 시원하게 자극해 왔다.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레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다.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

그는 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의 얼굴을.....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낮익은 공간의 어딘가가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느껴졌다.

“어떻게 오시었소?”

대머리 사내가 권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전당 잡힐 거라도?”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빠져 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낮선 문이 하나 거기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 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려다보였을 따름이었다. ㉟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는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결국은 짙은 혐오감을 남겨 놓았다.

-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

18. ㉞~㉟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 인물이 마주하는 대상을 주체로 서술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한다.
- ② ㉟: 인용 부호의 사용 없이 인물의 생각을 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낸다.
- ③ ㉞: 초점화된 인물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이 보일 반응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 ④ ㉟: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 상태와 앞으로 인물이 처하게 될 상황을 추측하여 서술한다.
- ⑤ ㉟: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 해당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면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난다.

앞 내용의 백작 : '그'가 계단

'그'가 자신의 생애에 의도없이 대해 생각함.

주체는 '그'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

→ 장자적 서술자는 확실한 문장 (느리다...)을 쓴다.

장자적 문장. 이야기 위치 존재이므로.

1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가 창고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은, 갯속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 ② '그'가 지상에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갯속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③ '그'가 창고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유패감'을 느끼는 것은, '낮고 좁은 '오소리 굴' 같은 갯속에서의 생활에 대응된다.
- ④ '그'가 '먼지'와 '석탄'을 죽은 '시간의 잔해'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창고 안과 갯속의 공통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
- ⑤ '그'가 지상의 하늘을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음산하다고 인식한 것은, '암흑'으로 가득한 갯속에서의 경험과 연관된다.

이까지 반복되는 일상. 똑같이 어떤데 시간 개념. 각 예가 5점.

20. ㉞와 ㉟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와 ㉟는 모두, 인물이 품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이다.
- ② ㉞와 ㉟는 모두, 인물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음을 보여 주는 반응이다.
- ③ ㉞는 인물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였음을 보여 주는, ㉟는 인물이 좌절감을 드러낸 반응이다.
- ④ ㉞는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된 결과로, ㉟는 해소된 인물 간 갈등이 다시 야기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다.
- ⑤ ㉞는 인물에게 주어진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한 결과로, ㉟는 인물이 예상 못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나타난 반응이다.

→ 사각팔면 문. 지동감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저당 잡힌 사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은,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하여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 맞물려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은 이에 순응하게 되어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이 끝없는 노동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①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이군.
- ②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살펴보며 '그'가 자신의 생애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로 규정하는 것은,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왔음을 자각한 것이군.
- ③ '그'가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공간을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여기는 것은,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군.
- ④ '그'가 '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둘러보'며 의식한 '야릇한 전도감'은, 창고 밖으로 향하는 출구인 동시에 다시 전당포의 입구가 되는 '문'의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이군.
- ⑤ '그'가 '이물스럽게' 여겨지는 공간에서 낮익음을 느끼고 '낯설어 보이는' 얼굴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연상하는 것은, 반복적인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되는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군.

7 20

일이 지켜 (노동의 굴레) 현상한 (당혹적 충동)

폐쇄적 굴레 (노동)에 순응하는 표시인가?

격하는 정면대.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데 전혀 없어  
삼십 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  
풍류 정취 끝이 없어 선계의 인연으로  
녹수청산에 분수대로 다녔는데  
잠깐 동안 병이 들어 시골집을 단았더니
- ㉡ 뒷절의 어떤 중이 시끄럽기도 하구나  
지팡이 천천히 짚고 와 나에게 하는 말이  
네 병을 내 모르랴 천석고황이라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산중에 비 갠 개니 날씨도 맑을시고  
어와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 있으려나  
지팡이 바빠 짚고 가는 대로 가자꾸나  
즉시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 ㉢ 맑은 바람 건듯 불고 새소리 지저귀는데  
시냇가 방초 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아이종 불러내어 뼈 드러난 여윈 말에게  
채찍을 걷어주고 마음대로 가게 하니  
때마침 삼월 삼짇 아름다운 계절이라
- ㉣ 아이들과 촌로들이 춘흥을 못 이겨  
탁주 병 둘러메고 느릿느릿 노래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 한가하기도 하구나  
석양이 비끼는데 말 등에서 잠이 들어
- ㉤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추천서 흘러내린 물이 청령포에 닿았구나

(중략)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 있어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밀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줄이 있었던가  
천지간 장한 경치 반 이상 물이로다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  
언젠가 성인 만나 이 이치 여쭙리라

㉠ 바윗길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 느슨히 메게 하고  
깎아지른 험한 벼랑 얼른 지나쳐서

㉡ 청옥산 속으로 첩첩이 돌아드니  
운모 병풍 비단 장막 좌우로 펼쳤구나  
운교를 걸어 건너 솔숲 속에 앉아 쉬며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 물어보자  
바람에 움직한 돌 내려진 지 그 몇 해며  
작 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에 쌓았는고  
이 손님 뉘시기에 어찌 들어와 계시는고  
낫 메고 새끼 찬 앞절의 상좌인데  
빨나무하러 와서 무심히 다니오니  
진관암 없어진 줄은 우리 다 알지마는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적\*에 부쳤도다

- 권섭, 「영삼별곡」 -

\* 목적 : 목동의 피리 소리.

(나)

[앞부분의 줄거리] 석릉자 김매순은 벼슬에서 쫓겨난 뒤 한강 근처에 쓰러져 가는 집 한 채를 얻었다. 바람이 심하게 요동치는데도 그는 집에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이란 요동치는 것이요, 집은 편안한 곳이다.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닌다. **석릉자의 뜻과 행동**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자, 석릉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기를 원하는가? 저 해와 달, 추위와 더위, 바람과 비, 뇌성과 벼락은 모두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해는 양을 맡고 달은 음을 맡으며, 더위는 사물을 펴 주고 추위는 움츠리게 하며, 비는 사물을 적셔 주고 벼락은 내리치니, 저 들은 오로지 한 가지의 기능이 있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 않다. 방위를 맡아서는 사방풍이 되고, 천지의 모퉁이를 합해서는 팔방풍이 되고, 소식을 전하여 24풍이 되고, 사계절과 조화하여 72풍이 되어서 한시도 바람이 불지 않는 때는 없다. 북쪽 바다에서 일어나서 남쪽 바다로 들어가기까지 왕궁과 여염집을 가리지 않고 불어대니, 한 곳도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없으며, 큰 나무를 뽑아 버리는 일이 있지만 굵은 싹을 펴 주기도 하고, 단단한 얼음을 얼리기도 하지만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니, 한 가지 일도 바람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뛰어난 재주와 웅변술, 용맹과 지모, 공적과 훈공, 부유함과 사치스러움 같은 것도 수천 년 안에 높고 얇게 울리고 흔들리며 넓고 크게 돌고 돌아 사라져 버리니,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소육과 주박이 서로 천거하여 현달하는 것\*과, 우승유와 이덕유가 서로 알력을 둔 것\*은, 아침에는 바람이 화한 듯하다가 저녁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바람으로서는 작고 작은 것이라 바람이 아니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남도 바람이요 나도 바람이니 유독 나만 그러하겠으며 옛날도 바람이요 지금 역시 바람이니 단지 이 집만 그러하겠는가?

생각건대, 바람에 처하는 데에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 데에 형체를 맡겨서, 가해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치지 않으면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그대 말이 그럴 듯하기는 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그래서 글을 써서 풍서기라 한다.

- 김매순, 「풍서기」 -

\* 소육과 주박이 서로 천거하여 현달하는 것: 소육이 주박과 매우 친했는데 소육이 출세한 후 주박이 그의 천거로 역시 출세한 것을 말함.

\* 우승유와 이덕유가 서로 알력을 둔 것: 중국 당 헌종 때부터 당 선종 때까지 걸쳐 일어난 우당과 이당 사이의 정치 투쟁을 말함.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문배경, 산맥 산길**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어디까지 안 X**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안 X**
- ⑤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구조를 통해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헛되이 보낸 자신의 과거를 집약하고 있다.
- ② ㉡: 풍경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화자가 떠날 길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인물들의 여유로운 행동을 열거하여 여로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 ④ ㉣: 공간의 이동 과정을 생략하여 시상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 깊은 산속에서 마주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제시해 풍광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가 여행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적에 대해 조언한다.
- ② ㉠과 ㉡는 모두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여행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무란다.
- ③ ㉠은 여정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고, ㉡는 여정의 지속을 도와준다.
- ④ ㉠은 여정을 시작하도록 화자를 독려하고, ㉡는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 준다. **조언, 비경인**
- ⑤ ㉠은 화자에게 여행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는 화자에게 여행의 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유한다.

25.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사람'은 바람과 집이 각각 '요동치는 것'과 '편안한 곳'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 ② '석릉자'는 바람과 달리 '해와 달', '추위와 더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의 기능'만을 지녔다고 보았다.
- ③ '석릉자'는 바람이 '큰 나무'와 '굽은 싹', '단단한 얼음'과 '물결'을 아우르는 만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 ④ '석릉자'는 '뛰어난 재주와 웅변술', '용맹과 지모' 등이 결국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바람과 같다고 보았다.
- ⑤ '석릉자'는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긴다면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서양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대'  
 '그대'의 주장은.. ㉠ 바람은 요동치는 ~  
 ㉡ 깊은 평안한 ~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은 석릉자의 주장.

**→ 문배경 등. 특유의 문체 이해 필요.**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질문의 형식은 인물의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다. 그 내용과 대상을 달리하는 질문들은 인물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촉발되어 작품 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과정에서 인물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 ① (가)에서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끓어~~ ~~있었던가~~'는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지는군. **→ 그저 자연에 한탄했을 뿐.**
- ② (가)에서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라는 질문은 '망망대양'을 본 경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자연의 이치는 '성인'을 만나서야 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군.
- ③ (가)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은 '알절의 상좌'의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④ (나)에서 '석릉자의 뜻과 행동'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질문은 '바람과 집'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석릉자'의 답변으로 이어지는군.
- ⑤ (나)에서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은 직전 질문에서 이어지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석릉자'의 깨달음이 바람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 주는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은 소대성에게 따라오라 하며 곧바로 내당 쪽으로 들어갔다. 소생이 마지못해 승상을 따라가다가 중헌에 막 들어섰다. 이때 왕 부인이 중헌에서 배회하다가 문득 승상이 어떤 소년을 데리고 난간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몸을 피하여 내당으로 들어갔다. 승상은 벌써 중헌에 자리를 정하고, 시비를 불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 했다.

“백년가객을 데리고 왔으니, 부인은 바빠 나와 맞이하시오.”  
왕 부인이 마지못해 나와 소생을 맞이하니, 승상이 말했다.  
“부인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사윗감을 직접 데려왔소. 부인은 딸아이를 불러서 함께 내 말과 어긋남이 있는지 자세히 보오.”

승상이 또 시비에게 소저를 나오게 하라 명하자, 시비가 명을 받들고자 안으로 들어갔다. 왕 부인이 감히 승상의 명을 말리지 못하고는 소생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는 화려하지만, 선비의 모양새는 전혀 없었다. 이에 왕 부인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채봉이 섬약하나, 저 같은 아름다운 재주의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 슬하에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 했었다. 한테 소생은 나의 이런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또한 채봉이 승상의 명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모르거니, 시비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서는 평소에는 망령됨이 없으시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신단 말이나? 소생은 남이니, 내가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들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오늘은 결단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여 채봉은 병이 있다고 거짓으로 둘러대고 중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승상이 시비를 통해 꾸짖었다.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지간이거늘 이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니, 이는 오류가 끊어지고 삼강이 무너짐과 다름 아니어라. 아버가 세 번 부르는데도 좇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도다.”

채봉이 이 꾸지람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비를 따라 중헌에 나아갔다. 소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말했다.

“딸아이를 이곳에 오라 한 것은 자네 때문인데, 어찌 나가려 하는가?”

그리고 채봉을 어서 들게 하니, 채봉이 이미 앉을 자리에 서 있었다. 소생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승상이 채봉에게 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했다. 인사를 마친 채봉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왕 부인 곁에 앉으니, 승상이 말했다.

“하늘이 영웅 군자를 점지해 주시어 너를 위하여 데려왔는데, 어찌하여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채봉이 아미를 숙이고 잠잠히 있었다. 승상이 소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딸아이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자네에게 욕되지는 아니할 것이네.”

소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인의 크나크신 은혜이옵니다.”

소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을 들어 채봉을 잠깐 보았다. 비록 화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다. 하여 소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이때 채봉 역시 눈을 들어 소생을 잠깐 보았

다.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청룡이 푸른 바다에서 굽히는 듯 백호의 기상인 듯하여, 속되지 않은 순수한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중호걸이라 생각하며, 부친의 명감\*에 탄복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승상은 갑작스레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왕 부인과 승상의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 한다.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난 소대성은 승상의 집을 떠난다.

이튿날 채봉은 왕 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소생의 일을 물었다.

“소녀 듣자오니 군자께서 서당을 떠났다 하운데, 오라버님들에게는 응당 하직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니 무슨 연고로 나간단 했습니까?”

“너는 규중처자의 몸인데, ㉠ 의간 남자의 유무를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소대성 where?

채봉이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다.

“소녀가 ㉡ 군자의 거처를 묻는 것이 여자의 행실로서는 옳지 못하다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지난날에 중헌에서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여자가 곧은 절개를 지키는 것은 떳떳한 일이온지라, 어머님께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왔습니다.”

“너는 그러면 소생을 위해 수절을 하겠단 말이나? 대개 수절하는 데는 다 곡절이 있는 것이다. 네 아버님께서 오륙 년 후에 옥례를 갖추어 혼인을 하자는 취종의 약속은 아직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소생은 곧 남과 마찬가지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마라.”

채봉이 안색이 변하여 말했다.

“어머님! 분명히 중헌에서 두 사람이 예를 이루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삼종지의를 이룬 것이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서는 증인이 되신 일이거늘, 이제 와서 소녀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 하시고 가문에 욕된다고 하십니다. 옛날 초나라 왕이 다섯 살 된 공주에게 ‘네가 자라면 성 밖의 백성들 중 한 명에게 며느리로 주겠다.’라고 희롱했습니다. 공주가 자라 부마를 간택하려 할 때, 공주는 ‘신첩이 다섯 살 적에 부왕께서 성 밖의 백성에게 저를 며느리로 주겠다고 하셔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밤낮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왕께서 이제는 다른 곳에서 부마를 간택하신다고 하시니, 신첩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백성의 며느리가 되기를 죽기로써 간청합니다.’라고 초왕에게 여쭙었는데, 초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자책하고는 백성들 중에서 부마를 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절행이 욕되다고 한 이가 없습니다. 소녀는 이제 열셋입니다. 어찌 소녀가 다섯 살의 어린아이만 못하겠습니까?”

[A]

왕 부인은 이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채봉을 꾸짖었다.  
“네가 내 뜻을 거스르겠다면 금일부터 모녀의 정을 끊으리라!”  
채봉은 효성이 지극하여 모녀의 연만은 끊을 수가 없어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꽃처럼 아름다운 뺨을 적시고 있었다. 승상의 아들이 곁에 앉아 있다가 말했다.

“누이가 평소엔 총명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도 고집을 부려 어머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 옛사람의 고집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게야.”

채봉이 눈물을 닦고서 말했다.

“오라버니의 말씀은 어머님을 위한 것이지, 군자로서의 정직하신 말씀은 아니로소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너는 두 지아버를 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니 제가 절행을 숭상하지 아니할지라도 옳은 말씀으로 당부하셔야 합니다. 한데 어린 동생의 마음을 떠보시려 하시니,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니옵니다. 정녕 한심합니다.”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명감: 뛰어난 식견.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승상과 소생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당으로 들어갔다.
- ② 채봉은 내키지 않는 일을 피하고자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 ③ 소생이 불편함을 느껴 중헌에서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이를 만류했다.
- ④ 승상의 아들들은 **채봉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아** 채봉의 변심을 종용했다. *→ 문제 삼고 본인 평(의) 사(의) 행(의) 동(의) 을 문제 삼아 채봉의 변심을 종용했다. 평은 언제 '어떻게 돌아다'의 느낌.*
- ⑤ 채봉은 승상의 아들들에게 들은 말이 군자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을 통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 소(의) 대(의) 성(의) 평(의) 가 (의) 반(의) 대(의) 정(의) 사(의) 가*
- ② ㉠과 ㉡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과 ㉡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인물 간의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과 ㉡을 통해 동일한 인물이 겪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과 ㉡을 통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촉발된 각각의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9. [A]에 나타난 '채봉'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음을 밝히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발언이 그의 과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발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③ 특정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 ⑤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이 명백한 사실임을 환기하고 있다.

[A] 서술 참고.

결단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을 반복하는 건 '충주'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소대성전」은 뛰어난 글재주와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형 인물이 아닌, 우월한 신체와 호방한 기질을 지닌 호걸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인기를 얻은 대중 소설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혼인담에서 등장인물들은 가부장적 질서나 부자 간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등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 ① 승상이 '천륜지간'을 내세워 채봉을 나무라는 것과 왕 부인이 '아름다운 재주의 뛰어난 선비'를 사위로 들이길 바라는 것에서,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② 소생의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가 화려하여 '백호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 것에서, 주인공이 지닌 호걸형 인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군.
- ③ 승상이 독단으로 '선비의 모양새'가 없는 소생을 사윗감으로 정한 것에서, 승상이 가부장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선비형 인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는 얽매이지 않았음이 드러나는군.
- ④ **왕 부인이 '묵묵히 앉아'** 승상의 뜻에 따라다가 승상 사후에 태도가 변한 것에서, 보편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⑤ 채봉이 승상의 '망령됨'을 탓하다가 직접 소생을 본 후에야 승상의 '명감'에 탄복하게 된 것에서, 가부장의 판단에 동의하게 된 것이 주체적 판단의 결과임이 드러나는군.

*왕부인은 볼까저 소(의) 대(의) 성(의) 평(의) 가 (의) 반(의) 대(의) 정(의) 사(의) 가*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현재시*

(가)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즐리고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 오는  
 회색의 잔디밭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  
 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A]

- 김기림, 「아스팔트」 -

▶ **인용 1기!**

(나) **겨울**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①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한층 상함 (자나는 중)**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이 때는 ② **신포 어디쯤에 닿아 해맨다 **한층 상함**.**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 속에 곤두서는 봄 밖의 봄바람! **봄바람에 대한 영한**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 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연소, 너도?****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화자할 유사한 처지라고 느껴지는 염소**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 타박거리며 간다  
마음은 곁가지로 펼쳐거리며 덜 핀 꽃나무) **마음은 **강등** **잠 펼쳐 주고 싶음****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해상관 (영정)**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너머**  
**(끝내 닿을 수 없는) ③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바다 건너 **강등** **참** **있음은 **더 지워야 해..******  
닷이 끊긴 배 한 척,  
**↳ **강등(2번) 승진 **강등********

- 김명인, 「봄길」 -

\* 부리러: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러.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명암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다.**

- ①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다.
- ② 대상과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여 화자가 느낀 경이로움을 나타낸다.
- ③ 대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느낀 화자의 회의감을 드러낸다.
- ④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자의 권태로움을 해소한다.
- ⑤ 대상과의 관계를 역전시켜 화자의 침울함을 극복한다.

**아스팔트를 '너'는 칭한. **한층 상함으로 심리적 거리 좁힘.****

**'우울'은 **역학적 정서를 투영했다고** 문수 있음.**

33. a ~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 ② a에서 '건너기'의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한다.
- ③ b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바람'을 '몸 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 ④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⑥와 ③ 사이에 놓인 '닷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 ⑤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확실한 근거> **수식관계. ⑤가 끝내 못 닿는 속살을 가만다는 의미.****  
**<적합한 해석> **마음 **꽃나무. 펼쳐주고 싶다..** **상심 (현실적인 느낌) **아니 언제 끝내 닿을 수 없는 곳 몇곳은 더 지워야(동리야)..******  
**핵심한 문장이라고는 본수 X **그저 풍경에 닿기 위한 **경우지나사 막연한데.. 라는 느낌.********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된고,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 ① (가)에서 '4월'의 '가로수'는 '일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 생명력을 띤지 않은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되었음을 드러내고, (나)에서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몸'은 바다를 건너는 '배'와 중첩되어 화자의 부유하는 내면을 드러낸다.
- ② (가)에서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되어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된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가)에서 '지평선의 흥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인들'을 '위하'는 존재로 포착된 것은,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 ④ (나)에서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 것으로 전이되면서,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너머'와 중첩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화자의 인식을 암시한다.

**① **완전히 드러날 수는 없음.****  
**② **but '아스팔트'와 '자동차'는 도시문명을 대표. **같은 것은 대항하는 것끼리 경계가 있음 리 없다. **즉, **완화된 경계 자체가 없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